



예거 르쿨트르, 눈부신 밤하늘을 기념하는

데즐링 문 라주라 모델 출시

여성성을 기념하는 랑데부 컬렉션은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와 장인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는 모델입니다. 그랑 메종은 2021 년을 맞이하여 여성을 위한 랑데부 데즐링 문 라주라를 선보입니다. 대형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재해석한 이 모델은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의 코드를 결합함으로써 로맨틱한 밤하늘의 절묘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여성적인 면모와 상징적으로 연결된 달은 오래전부터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달의 변화하는 위상을 측정하여 표시하고자 노력했던 워치메이커들을 끊임없이 매료시켰습니다.

지극히 여성스럽고 낭만적인 워치 컴플리케이션을 담아낸 랑데부 데즐링 문 라주라는 강렬한 푸른빛의 라피스 라줄리와 눈부신 다이아몬드, 따뜻한 핑크 골드, 마더 오브 펄의 은은한 광채가 조화를 이룹니다. 다이얼을 둘러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동심원을 그리며 주얼리 위치의 정체성을 간직한 모델로,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랑 메종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다이얼 외곽을 형성하는 대형 다이아몬드 36 개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매뉴팩처의 마스터 주얼러는 고전적인 프롱 세팅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를 높이 떠받친 작은 골드 클로 덕분에 각각의 스톤의 눈부신 존재감을 발산하며, 원 전체가 시계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위로 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겨 줍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링은 베젤에 장식된 72 개의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내부 동심원으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러그의 윗면 역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으며 각 크라운에는 인버트 세팅 다이아몬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음처럼 투명한 광채를 띤 다이아몬드와 대조되는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의 짙은 푸른색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순간, 하늘의 신비로운 딥 블루 컬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이얼 상단에서 시간을 표시하는 랑데부 컬렉션의 시그니처, ‘플로럴’ 애플리케이션 숫자는 사이즈를 달리하여 넓은 원호 형태를 만들어내며, 68 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하단 다이얼의 타원형 밴드 위에서 솟아오를 듯한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별자리표의 섬세한 트레이서리 장식에서 주인공을 맡은 달은 대형 사이즈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달빛을 닮아 은은하게 빛나는 무지갯빛 마더 오브 펄 표면이 딥 블루 컬러를 배경으로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천체도에서 각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을 표시하는, 폴리싱 처리된 작은 골드 반구에는 라피스 라줄리가 장식되었습니다.

랑데부 컬렉션의 엠블럼인, 수작업으로 폴리싱 처리한 골드 스타가 다이얼 테두리에 세팅되어 특별한 약속 시간을 표시합니다. 2 시 방향의 케이스밴드에 세팅된 두 번째 크라운을 돌려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위치메이커가 달과 별에 매료된 이유는, 천체가 지닌 매혹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주기를 통해 인류 시간 측정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페이스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위치메이커의 탁월한 노하우는 매뉴팩처 칼리버 935 의 기술적 정교함을 통해 랑데부 데즐링 문 라주라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랑데부 컬렉션을 위해 2015년에 특별히 개발된 이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972 년 동안 조정이 필요 없는 대형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의 놀라운 정확성으로,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보기 드문 업적을 세웠습니다.

정교한 무브먼트는 위치메이커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마감 및 장식은 이들의 예술성을 드러냅니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양쪽 플레이트의 고프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줄무늬와 오픈워크 18K 골드 와인딩 로터와 같은 정교한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비주얼과 뛰어난 기술력이 돋보이는 랑데부 데즐링 문 라주라는 여성의 매력과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기념합니다.



기술 사양

랑데부 데즐링 문 라주라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칼리버 935 - 오토매틱

기능: 시, 분, 문페이지, 랑데부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0 시간

다이얼: 라피스 라줄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90 개의 다이아몬드 - 3.53 캐럿

케이스: 핑크 골드

직경: 36mm

두께: 10.76mm

케이스백: 오픈

방수: 5 바(bar)

스트랩: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예거 르쿨트르: 1833 년부터 이어온 파인 위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위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위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위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위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